

<최후의 전시>

2024년 8월 21일부터

만든 사람들: 김창재, 임다울, 정세영

도움 주신 분들: 로쿠스 솔루션, 배은아, 오종

김창재

<방향계>, 2024년부터, Scaffolding Platform, Flooring Mat, Misting Poles, LED Strips,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5번 출구 앞 공설 주차장 끝부터 경의선숲길 새창고개 중턱까지 약 500미터 구간

아직 해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낮의 열기는 사그라든 시간. 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던 장소인 효창공원역을 둘러싼 공터에 있다.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며 보던 이곳은 빛을 반사하는 눈이 부신 하얀 보도블록이 깔린,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다. 여름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부시게, 겨울에는 얼음처럼 차갑게 보이던 곳이라 행인이 드문 버려진 곳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 제법 나무가 심겨 있고, 그저 이곳을 지나는 주민인지 아니면 작품을 보러 온 관객인지 알 수 없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나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김창재 작가가 만든 전망대로 올랐다. 2층 정도 높이의 전망대는 낮은 경사의 슬로프가 한번 꺾여 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길 건너의 경의선숲길이 시작되기 직전의 사거리에서 끝이 났다. 그 끝 지점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경의선숲길을 따라 작가가 설치한 조명 작업을 보기 위해서였다. 산책로를 따라 양쪽으로 설치된 분홍빛 조명은 산책로의 오르막이 끝나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조명 사이사이로 분무 되는 물방울들이 빛을 산란하게 하여 산책로 크기의 긴 안개가 생겨났고 그 위로 걸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묘해졌다. 마침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어 기분 좋게 잠시 전망대 고트머리에 머무르며 오가는 사람들을 본다. 효창공원역 출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선다. 갑자기 생겨난 이 전망대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며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잠시 엄마와 외출한 아이는 신나 하며 분무 되는 물방울 속으로 얼굴을 들이민다. 이 뜬금없는 곳에 커다란 전망대를 세운 작가의 메시지는 “길이 이어져 있음”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일지 모르겠다. 조금 높은 곳, 한층 정도만이라도 떨어져 바라본다면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인다.

임다울

<알렉시스 창>, 2024, 알루미늄 합금에 패브릭 프린트, 105cm x 60cm x 3cm (다리길이 30cm)

<티엔위징>, 2024, 알루미늄 합금에 패브릭 프린트, 205cm x 80cm x 3cm (다리 길이 185cm)

<노바 맥켈렌>, 2024, 알루미늄 합금에 패브릭 프린트, 215cm x 20cm x 3cm (다리 길이 195cm)

<타키 령>, 2024, 알루미늄 합금에 패브릭 프린트, 190cm x 75cm x 3cm (다리 길이 50cm)

<바둑이 Fido>, 2024, 알루미늄 합금에 패브릭 프린트, 140cm x 50cm x 3cm (다리 길이 90cm)

전망대 아래에서 커다란 덩치에 맞지 않게 감쪽한 샛노란 관광버스가 우리를 기다리며 경적을 울린다. 아무런 문구나 장식이 없는 밝은 노란색에 시커먼 창문을 가진 버스는 마치 커다란 곤충 같다. 전망대 위에서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던 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기대하며 천천히 버스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버스에 올라 버스 안을 훑 둘러보고 비어있는 빈 좌석을 찾아 앉았다. 버스 안이 꽤 찬 걸 보니 마흔 명 정도의 사람이 있나 보다. 혼자 온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 보고, 짝지어 온 사람들은 속닥거리며 달라진 효창공원역 풍경에 관해 이야기한다. 속삭이는 목소리에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 데, 버스가 ‘위잉’ 전기 모터 소리를 낸다. 내연기관 엔진보다 분명 더 작은 소리인데도 이상하게 귀를 찢어 잠이 깬다. 아직 온전하게 익숙하지 않은 이 버스의 외침이 조금 전의 몽롱했던 기분을 사라지게 한다. 그렇게 20여 분을 달린 후, 버스는 알 수 없는 곳의 어느 어두운 골목 입구에서 멈춘다. 골목 끝에 밝게 빛나는 통유리의 전시장이 얼핏 보인다. 우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꽤 널찍한 하얀 전시장의 한가운데 다섯 개의 작품이 서로서로 조금씩 걸쳐 세워져 있었다. 1미터에서 2미터 정도가 되어보이는 작품들은 각각 다른 비율의 긴 다리를 가진 이미지들이다. 하나의 물고기 이미지를 다섯개의 화면이 각각 분할하고 있었는데, 검은 바탕에 반짝이는 분할된 물고기의 이미지가 아름답기도, 기괴하기도 하다. 가까이 다가가 재료를 살펴보니 이미지가 프린트된 재료는 밖이 살짝 비치는 패브릭이다. 맞은편에도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어 앞뒤의 이미지가 약간 겹쳐 보이긴 하지만, 반대편 이미지는 색이 강하고 앞쪽 이미지는 형태가 강하여 서로를 완전하게 방해하지는 않는다. 여러 색상들이 넓적하게 퍼져있는 몽환적인 반대편 이미지의 정체는 행성이었다. (어떤 행성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토성처럼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었다) 두 이미지 안쪽으로 구불거리는 형체를 발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두 화면을 지지하고 있는 틀 사이로 알 수 없는 형태의 곡선 조각들이 보인다. 지지체는 캔버스의 틀과 같은 형상이었는데, 그 프레임에서 마치 덩굴이 자라난 듯, 그로부터 고불고불한 곡선들이 갈라져 나와 있었다. 양면이 서로를 비춰 움직인 듯 보이는 두 개의 이미지와 회화 작품의 틀, 그리고 그 안쪽으로 자나는 곡선 조각들이 이 물체(작품)를 어떤 것으로도 지칭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영상인가, 회화인가, 조각인가. 작품은 그사이를 걸쳐 있으면서 동시에 틈으로 빠져나간다.

한참 이미지 안의 곡선들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있었을 때, 두 명의 남자가 손에 천을 들고 나타난다. 두 사람은 귀걸이와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걸치고 레이스가 달린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들은 작품으로 다가가 작품의 아래쪽 모서리에서 지퍼를 찾더니 그것을 올려 이미지를 벗겨낸다. 발가벗겨진 지지체의 곡선 조각이 더 뚜렷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 그것도 잠시, 두 사람은 들고 온 다른 천을 작품에 씌우고 지퍼를 잠근다. 위아래가 잘린 강아지의 몸통이며,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진실을 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 기다란 점박이 생선(이후 물어보니 곰치라고 했다)의 몸통과 교도소 배식 창구, 크리스마스 별장식, 풀꽃, 어항 속인지 바닷속인지 모를 이미지, 캔버스 틀 이미지와 캔버스 천을 크게 확대한 듯한 이미지가 다섯 개의 작품 앞뒷면에 씌워진다. 이미지들은 마치 누군가의 조각난 기억들처럼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 하나의 물고기, 하나의 행성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나의 착각이었을 것 같다. 두 사람은 다섯 개의 작품, 열 개의 이미지를 모두 갈아입히며 “입는 것”에 관하여 말한다. 대화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말은 분절되거나 질문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질문하며 답하는 듯하다가도 다시 질문하면서 결국 아무 답도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마친 후 퇴장한다.

갑자기 달라진 이미지들때문에 나는 작품들을 새로 다시 봐야했다. 같은 작품이면서 다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 것이 입었던 이미지들처럼, 그들이 나눈 대화처럼, 이 작품이 어떤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퍼포먼스 이전과 지금의 작품들은 분절되었으면서도 연결되고, 같으면서도 다른,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다. 나는 이 이미지들과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연결할 수도 있고, 매체와 정체성의 이야기를 붙여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시장을 나오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모든 것들이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의 가닥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너무 애처로워 보였기에.

정세영

〈내일의 이웃〉, 2024, theatre-performance, 2h 30min.

해가 완전히 넘어가 밖이 캄캄해졌다. 전시장 바깥으로 나온 우리는 다시 노란 버스로 향한다. 캄캄한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버스가 아까와는 달리 섬뜩해 보인다. 버스가 출발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자, 내부가 꽤 조용해진다. 그렇게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때쯤, 버스 안에 있던 모니터가 켜지고 영상이 흘러나온다.

☞세영의 증언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 미확인 물체가 생겨났고, 그 뒤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보아하니 상황이 꽤 혼란스러운 듯하다. 우리가 버스에 내려 보게 될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던 찰나, 버스가 어느 양곡창고 앞에 멈추어 선다. 맨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간단한 안내를 해주고, 우리를 세 팀으로 나눈다. 우리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각 팀의 안내자 앞에 웅기종기 모인다. 이미 해가 지고 꽤 어두워진 후였지만, “내일의 이웃”이

라고 쓰인 큰 간판이 빛을 뿜으며 가로등 역할을 해주었다. 간판 아래, 양쪽으로 열리는 큰 문이 보였다. 우리는 각각 열 명이 조금 넘는 세 팀으로 나뉘어 안내자를 따라간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사람보다도 더 키가 큰 갈대들이 좌르르 쏟아지며 머리를 내민다. 안내자는 공간을 가득 메운 듯한 갈대숲 안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나눠준 작은 손전등에 의지하며 앞사람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했지만, 풀냄새와 흙냄새, 몸을 감싸는 갈대들이 왠지 포근하게 느껴졌다. “보기보다 꽤 넓은 창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 어느덧 우리 앞쪽으로 밝은 빛이 켜지며 커다란 공터가 눈앞에 나타난다. 갑자기 켜진 강한 빛 때문인지 공간감 없이 한참을 걸어 온 탓인지 현기증이 일어 눈을 감았다가 가까스로 다시 뜬다. 어느 틈에 도착한 것인지,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이 공터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다.

공터 끄트머리에는 악기가 세팅된 무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조금 전 영상으로 본 커다란 물체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여자고, 다른 한 명은 남자다. 그들은 그 괴상한 물체에 손을 담근 채 - 손을 갖다 댄 것이 아니라, 담근 모양이었다. 투명한 젤리 같은 것이 그들의 손등까지 덮고 있었으니 - 몸을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앞으로 가드라인과 함께 “접근금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었으므로, 나는 아까와는 다르게 약간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나온 풀숲 안에서 짐승이 포효하는 소리와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 꼼짝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물체는 생각보다 더 기이했다. 어떻게 제작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커다랗고 쭈글쭈글한 둥근 물주머니 같은 것 안에 노란 단무지 같은 것들이 어항 속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다. 게다가 물체에 손이 붙은 것 같은 저 두 사람의 모습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긴 곱슬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는 우리를 향해 있었지만,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물고 어딘가를 응시하며 확신에 찬 표정, 무언가를 지키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에 반해 남자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했다. 얇고 메마른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어깨에 통증이 있는 듯 눈썹이 자주 찌푸려졌다. 남자는 자신의 앞에 놓인 허름한 백팩으로 자주 시선을 돌리며 간혹 한 쪽 발을 가방 쪽으로 뻗었는데 가방은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가방의 열린 지퍼 사이로 물병이 보였다. 이때 관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나 가드 라인을 넘어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가 단호하게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들렸다. 그때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크게, 짐승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대답 때문인지, 짐승의 울음소리 때문인지 관계자는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짐승의 소리는 잔잔해지다가도 익숙해질 때쯤 다시 한 번씩 우리를 놀래키려는 듯 갑자기 커지곤 했다.

무대 위로 연주자들이 등장한다. 헤비메탈 밴드와 같은 복장을 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백인들이었다. 모두의 예상 외 연주자들의 모습에 관객 몇몇이 실소를 터뜨린다. 그들이 각자의 악기 앞으로 가서 악기를 조율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주변의 짐승 소리와 기묘하게 겹쳐지며 하나가 되었다. 조율을 위한 연주가 시작되자, 풀숲에서 스태프들이 우르르 큰 테이블을 돌리며 객석 쪽으로 등장해 테이블을 설치하고 흰 천을 펼쳐서 씌웠다. 테이블마다 여덟 개씩의 의자가 놓이고 우리는 하나 둘 씩 그 자리에 앉았다. 매우 익숙한 듯 빠르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놀라울 정도였다. 모든 사람의 착석이 끝나자, 리더로 보이는 형클어진 긴 머리의 헤어밴드를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곧 공연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쪽 어두운 곳에서 한국말이 들린다. 자세히 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드러머가 뒤에서 리더의 말을 통역해 주고 있었다. 리더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겠다고며, 점프하여 무대 아래로 내려와 여자에게 마이크를 건넨다. 하지만 여자는 마이크를 쳐다도 보지 않으며 입을 꼭 다문 채 계속 같은 곳을 응시한다. 그는 바로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외친다. “Let's start with the first song, Tomorrow's Neighbour!”

전자기타 소리에 전자드럼 소리가 겹쳐 시작한 음악은 뜻밖에도 시골벽적인 헤비메탈 사운드로 이어진다. 거기에 더 이상을 깬 하이톤의 보컬 음색이 무거운 음악을 뚫고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가느다라면서도 선명한 보컬의 목소리 덕분에 가사는 분명하게 전달되었는데 - 게다가 여태 영어를 쓰던 그가 한국말로 노

래를 부르는 희한한 광경이었다 - 교도소에서 이제 막 출소한 사람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내용이다. “편의점 알바 이틀만에 찔렸네~ 나를 왜 찌르니, 내가 출소자라서 그러니, 아니 니가 일을 못해서 그래~”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들과 함께 이 시끄럽고 우스꽝스러운 음악이 끝나며 기타부터 시작한 하울링이 리드 싱어의 하울링으로, 그리고 우리 뒤, 수풀 속에서 짐승들의 (아마도 코러스였을 것이다) 하울링으로 이어지며 음악이 끝났다.

바로 두 번째 곡으로 이어진다. “옐로우 몬스터!” 이번엔 잔잔한 락 발라드다. 보컬은 역시 한국말로 노래를 이어 갔는데, 세상에 막 태어나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기 벌이 꽃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보컬이 와이어를 달고 무대 천고 쪽으로 펄쩍 뛰어오른다. 그러고는 관객석으로 날아와 천고 끝까지 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닿기를 반복하며 관객석 여기저기를 헤집고 헐떡거리며 노래한다. “펄쩍 뛰어오르는 눈이 큰 녀석아, 너 혹시 꽃이니? 아니, 난 개구리야. 바닥에 붙은 길쭉한 녀석아, 너 혹시 꽃이니? 아니, 난 뱀이야. 멍청하게 짓어대는 털복숭이 녀석아, 너 혹시 꽃이니? 아니, 난 개야.” 이 기괴한 가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게다가 보컬의 침이며 땀이 아래로 뚝뚝 떨어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분비물을 닦아내기에 바쁘다. 드디어 아기 벌이 꽃을 찾아 꿀을 짹짹 빨고 사내도 사뿐히 무대 위로 다시 내려와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으며 나즈막이 노래를 마무리한다. “쭈우욱 - 쭈우욱 -”

이와 동시에 스태프들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접시들을 들고 테이블로 다가오다. 탱글탱글해 보이는 독일 소시지인데, 그 색이 너무 셋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소시지에서 나오는 진한 체다치즈 향이 좀 전 보컬의 땀 냄새와 뒤섞여 구역질이 난다. 몇몇 사람들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입에도 대지 않았으나, 나는 맛이 궁금하여 한 조각 잘라본다. 칼을 대자마자 툭하며 안에서 치즈 조각들이 터져 나온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답답한 내부 공기 탓에 두어 입을 더 먹고 물로 입을 헹궜다. 갈대숲으로 제법 향긋하고 시원하던 극장의 내부가 치즈와 땀이 범벅된 냄새도 뒤섞여 답답하고 거북해졌기 때문이다.

“The last song, To My Mother!” 실컷 한국말로 노래하던 보컬은 다시 영어로 마지막 노래를 소개하고, 드러머는 잊지 않고 이 말들을 통역한다. “마지막 곡입니다. 어머니께” 다시 강렬한 락 음악이 퍼져 나오고, 숲속에 있던 코러스들도 모두 무대로 올라온다. 동물 가면을 쓰거나 동물 코스튬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그동안 수풀에서 나던 모든 짐승 소리를 저들이 담당했던 것 같다. 수가 꽤 되나보다 했는데, 무대가 짹 차고 나서도 멈출 기세 없이 계속 무대 위로 올라간다. 결국 악기와 마이크들을 쓰러트리고, 연주자들도 인파에 휩쓸려 무대 안쪽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된다. 드디어는 모든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고 중앙에 있던 보컬마저도 휩쓸려 가려는데, 그가 안간힘을 쓰며 얼굴을 밖으로 빼내고 나즈막이 외친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커다란 손이 그의 얼굴을 덮어 엉망으로 뭉쳐진 인간 덩어리 속으로 끌어당긴다. 무대와 관객을 정신없이 휩쓸던 셋노래고 강렬했던 조명은 그의 얼굴을 끝까지 비추다가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자 단번에 꺼져버린다. 갑작스러운 암전에 눈앞에 번쩍거리는 잔상이 아직 다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불이 켜진다. 무대 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고, 마이크와 악기들이 여기저기 쓰러져있다. 이것이 공연인지, 재난인지, 웃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모를 상황이 닥쳤다. 몇몇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보고, 몇몇 사람들은 인상을 찡그리며 엉덩이를 들쭉거렸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리고 또 몇몇은 공연 내내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쳐댔다. 그중 가장 기이한 것은 공연 내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무대 앞의 두 사람이었다. 여자는 여전히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남자는 뭔가 초조해 보였다. 그는 무대 옆쪽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손을 들었고, 그것을 본 관리인이 빈 패트병을 들고 황급히 뛰어와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남자는 몸을 돌려 패트병에 불임을 본다. 저것도 연기인가? 연기라고 하기엔 노란색의 액체가 일정한 속도로 너무나 리얼하게 떨어지고 있다. 패트병이 가득 차서 넘칠듯한데도 줄기가 멈출 줄 몰라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불안해진다. 남자의 용변 보는 소리가 줄어들 때쯤 스태프들이 다시 접시를 들고 나타난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스테이크와 샴페인이 금세 테이블 위로 세팅되고, 조금전 소시지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샴페인을 한모금 마시고, 입맛을 다신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난 데다가, 효창공원역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동거리도 꽤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난장판이 이제 끝났으려니 싶어, 우리는 안심하고 약간의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나긋한 바람이 불어 답답했던 공간의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었다. 머리가 살짝 훑날리는 기분 좋은 시원함에 우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치며 조금 전 공연에 관해 이야기하며 깔깔대기 시작했다

다. 그 후 바람이 조금 거세진 듯싶더니 테이블보가 휘날리고 스태프들이 재빨리 들어와 접시를 거두어 갔다. 우리는 다시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지만, 이미 취기가 조금 오른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며 계속 깔깔거렸다. 그러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세어지며 암전이 된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더듬어 찾았다. 몸이 흔들려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늘 처음 본 사람들과 서로 손을 붙잡고 이 공연이 제법 끝나길 기도했다. 갑자기 뻘— 하는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들리더니 바람이 멈추고 불이 켜진다. 어느새 무대 앞에 관리인이 단상 마이크 앞에 서서 마이크를 툭툭 치고는 말한다. “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의 마이크 앞에 제법 큰 칼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 괴물이 극장에 나타난 지,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물체 때문에 극장 공연들이 취소되었고, 극장에 경영난이 찾아왔으며, 어쩔 수 없이 이런 디너쇼로 재정을 겨우 메꾸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바닥에서부터 포그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가 점점 흥분하여 “오늘 이 공연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더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괴물을 없애려고 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때 그의 몸 위로 빨간 레이저 점이 하나씩 생겨났다. 하나, 둘, 셋... 약 스무 개 정도의 점이 선명하게 그의 몸 위를 겨누고 있었다. 관리자가 칼을 번쩍 들자, 탕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에서 빨간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는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떴다가 단상 옆으로 쿵! 하고 쓰러졌다. 그러자 조금 전 공연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사람이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질질 끌고 갔다. 그가 끌려간 길을 따라 붉은 액체의 흔적이 남겨졌다.

그러자 이제껏 아무 말 없던 무대 앞의 두 사람이 함께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훌륭했기에 우리는 모두 경건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끝나지 않는 난장판 속에서 드디어 보상을 받을 기분으로 우리는 그들의 아리아에 귀를 기울였다. 아리아가 정점으로 치달자, 그 두 사람은 물체에 붙어 있는 두 손을 반대 방향으로 힘껏 당겼다. 그것이 점점 팽팽해지다가 결국 중앙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몇몇 관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물체에서 쏟아지는 단무지 같은 것들과 끈적한 액체들이 바닥을 뒤덮자,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우왕좌왕하며 공간의 주변으로 물러나 처음처럼 공간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때 수풀 속에서 열대가 넘는 로봇청소기들이 등장해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동물 탈을 쓴 코러스들이 옥수수 알갱이가 박힌 아이스크림을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주고는 어서 먹으라는 듯이 우리 주변에 서 있었다. 우리는 엉거주춤 서서 나눠준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먹으며 로봇 청소기와 코러스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때 밖에서 땡-땡-하는 버스 경적이 들렸다. 너무 반가운 소리였다. 어서 버스에 올라 편안한 좌석에 앉아 쉬고 싶었다. 코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눈치 챘다는 듯이 공터의 반대편 끝쪽으로 가더니 갈대숲을 가르며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망치듯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마치 극장 문과 연결된 듯이, 버스의 승차 문이 극장 바로 앞에 있었다. 우리는 올 때 앉았던 좌석들을 찾아 공연이 끝난 것에 안도하며 몸을 뒤로 깊게 기대어 앉았다. 모두 지친 듯이 보였다.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자, 버스 실내의 불이 켜지고 TV가 켜졌다. 실시간으로 비치는 극장의 모습이었다. 버스 외부 어딘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까 그 밴드가 부르던 두 번째 곡, Yellow Monster가 흘러나왔다. 모두 듣기 싫다는 듯이 아유하거나 한숨을 쉬었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다. 버스는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극장을 빙글빙글 돌며 천천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화면 속 극장도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노래가 끝나며 화면이 꺼지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끝.